

월간 실적보고

2015.10

Summary of 2015 Oct

1.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30.1%** 성장
 - 패키지 **21.4%** / 티켓 **47.8%** YOY 성장
 - 15년 패키지 1월-10월 누적 송출객 **100만명** (14년 연간 98만명)
 - 패키지 1년 연속 2자리수 YOY 성장률 (인원 10.7만명)
 - 티켓 15개월 연속 2자리수 YOY 성장률 (인원 6.4만명)
2. 일본 **41.6%** / 중국 **22.7%** / 동남아 **17.8%** / 유럽 **14.4%**
 - 일본 기고 효과 불구 **41%** 성장 (14년 10월 YOY 120%)
 - 중국 5개월 만에 **20% 이상** 성장 YOY 정상
 - 동남아 12개월 연속 2자리수 YOY 성장 (평균 YOY 21%)
 - 유럽 **14.6%** 성장률, 전월 대비 **3배상승** (15년 9월 5%)

10월 : 개선된 성장성

10월 합산 (패키지+티켓) 성장률 30.1%, 송출인원 17.1만명. 15년 내 3번째로 많은 월간 송출인원을 기록한 10월은 기고효과에 대한 우려를 견어내며 지난달(28.4%) 보다 개선된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패키지 성장이 전월 대비 개선된 것이 볼륨과 매출면에서 긍정적입니다. 4Q14부터의 성장으로 나타난 패키지과 티켓의 강화된 경쟁력에 3Q15의 MERS 이연수요까지 더해져 지속 성장이 기대됩니다.

패키지 성장률 21.4%, 송출인원 10.7만. 역대 10월 중 처음으로 패키지 송출 10만명 돌파했으며, 당사 최초로 연간 패키지 누적송출 100만명을 돌파하는 데 기여한 한 달이었습니다. (14년 총송객 98만)

티켓은 성장률 47.8%, 송출인원 6.4만. 본격적인 티켓부분의 기고효과가 시작되는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YOY 성장률 35.8%보다 12.7%p 높은 성장률을 기록, 꾸준한 볼륨 성장을 이어나갔습니다.

10월 실적

(단위 : 명, %)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5	107,562	63,920	171,482
2014	88,615	43,241	131,856
YOY	21.4%	47.8%	30.1%

총송객 YoY : 8월 37.2% → 9월 28.4% → **10월 30.1%**

패키지 YoY : 8월 20.4% → 9월 14.1% → **10월 21.4%**

티켓 YoY : 8월 74.3% → 9월 57.8% → **10월 47.8%**

일본 41.6% ↑ 중국 22.7% ↑ 동남아 17.8% ↑ 유럽 1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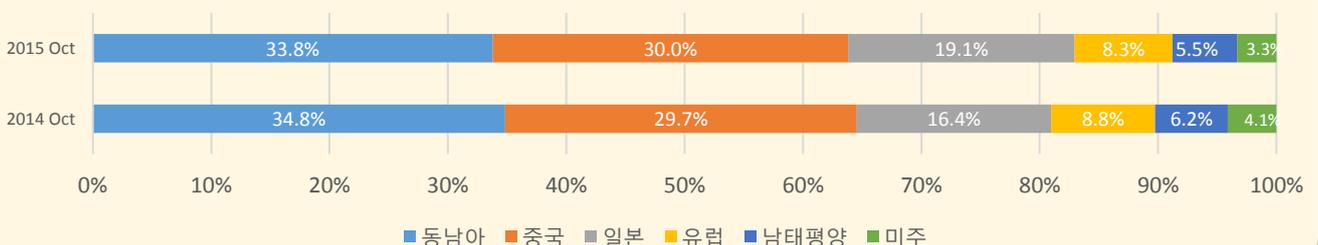
10월 해외 지역별 인원 성장률은 전년대비 **일본 41.6%, 중국 22.7%, 동남아 17.8%**, 지역별 인원비중은 **동남아 33.8%, 중국 30%, 일본 19.1%** 입니다.

일본은 전년동월 대비 **41.6%** 성장, 전년 동월의 YOY 성장률이 120%인 상황에서도 40%를 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근거리 목적지에서의 일본의 인기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22.7%** 성장, 그간의 역성장을 탈피하고, **동남아**는 **17.8%**로 1년간 2자리수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유럽은 전년대비 **14.4%** 증가하며 9월(5%)보다 3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MERS의 영향으로 부진했던 8월과 9월이 지나가고, 2년 넘게 이어온 좋은 성장성을 다시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원 비중



예약률 증감 (PKG)

(단위 : 명, %)

	11월	12월	16년 1월
2015년	92,638	49,133	28,891
2014년	70,312	35,803	22,962
증감률	31.8%	37.2%	25.8%
2014년 마감	84,913	90,481	138,584

* 2015.11.0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4분기의 예약률은 30% 이상으로 작년 4분기의 기고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준수한 상황입니다. 또한, 16년 1월은 25.8%의 성장률로 16년 1분기의 양호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인 15년 1월의 성장률이 31%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작년 세월호 사고, 올해 MERS로 인해 짧아진 Lead Time의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약일과 출발일 사이의 간격이 먼 경우 과거보다 정확한 성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짧아진 Lead Time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예약률 하락 속도가 둔화되었다는 점,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인원이 몰리며 성료된 '여행박람회'를 통한 모객과 홍보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의 성장도 낙관적일 것으로 예측됩니다.